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1.26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코스피는 43년 만에 5천 시대의 문을 열었음(1/23일 장중 5,021pt). 그러나 안착하지는 못함(4,990p, 주간 +149pt, +3.1%). KOSDAQ은 정부의 코스닥 3천 추진 기대로 상승함 (994p, 주간 +4.1%). 원달러는 정부의 환율 언급과 국민연금의 국내투자 확대 논의 속에 1,460원대로 후퇴함. 주 후반 美日 정부의 동반 개입 가능성에 엔달러는 155엔대로 하락함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관세 분쟁 우려로 급락했으나, 이후 협상 기대로 하락 폭을 축소함 (S&P500 -0.4%, 나스닥 -0.1%). 日 증시는 장기금리 급등과 정부 개입 우려 속에 하락함 (닛케이 -0.2%). 中 증시는 中 4Q GDP(4.5%yoy)가 예상에 부합하자 안도감에 상승 (상해 +0.8%, 항셍 -0.4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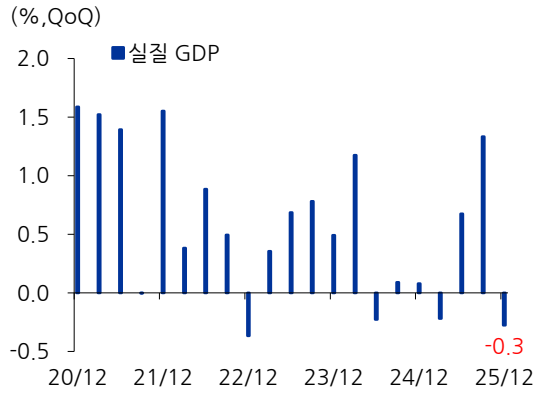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과거 코스피 새로운 천 포인트 도달은 호황기의 정점(peak)을 나타낸 바 있음. 더군다나 코스피는1월에만 18.4% 올랐음. 급등에 따른 경계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. 그러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음(12개월 PER 10.5배). 주가 상승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확산을 예상함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FOMC회의(1/28~29일)
  ② 유 4분기 GDP(1/30일)
  ③ 美 12월 생산자물가지수(1/30일)
  ④ 美 11월 내구재 주문(1/26일)
  ⑤ 美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(1/28일)
  ⑥ 中 1월 국가통계국 PMI (1/31일)
  ⑦ 美 MS, 메타, 애플, 테슬라 등 실적 발표

구분		1/23	1W	1M
KOSPI	↑	4,990	3.1%	21.2%
S&P500	↓	6,916	-0.4%	0.1%
DOW	↓	49,099	-0.5%	1.4%
닛케이225	↓	53,847	-0.2%	6.8%
상해종합	↑	4,136	0.8%	5.5%
원/달러(원)	↓	1,466	-0.5%	-1.2%
엔/달러(엔)	↓	158	-0.1%	1.3%
국고채3년(%)	↑	3.137	3.080	2.96
국고채10년(%)	↑	3.590	3.488	3.38
미국채10년(%)	-	4.23	4.23	4.17
WTI(달러/배럴)	↑	61.1	2.7%	4.6%
한5-yrCDS(bp)	↑	21.0	0.3	-1.0

CHART of the week

韓 실질GDP 추이



1 美 트럼프,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고조
관세에서 복합위기로. 지정학적 긴장은 지속

- 美 트럼프 대통령은 '그린란드 매입 허용'을 위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(2/1일 10%, 6/1일부터 25% 상향)를 예고함. 유럽도 보복 관세와 그린란드 병력투입(8개국)으로 맞대응함.
- 다행히 1/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무력 사용은 하지 않는다고 발언. 관세위협에서 후퇴함.
-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은 유지하되, 美이 골드 돔 미사일 안보 시스템을 배치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됨.
- 보복관세와 자산 매각 위협은 '제살 깎아 먹기'임. 경제적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임.

2 中 4Q GDP +4.5%, 25년 목표 달성(1/19일)
공급과 수요 괴리, 부양책 기대감 높아질 듯

- 中 4Q GDP는 +4.5% yoy 성장하며 예상(+4.5%)에 부합함(전기대비 +1.2%). 연간으로는 5% 성장해 정부 목표(5% 내외)를 달성함.
- 내부적으로는 "공급 견조-수요 부진"이 이어짐. 소비(+2.4%p) 기여도가 낮아짐. 반면 수출 호조로 순수출(+1.4%p) 기여도는 반등함.
- 부동산은 4분기 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. 고정자산투자는 연간 -3.8%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로 기록됨.
- 2026년 성장률 목표는 +5.0% 내외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음. 부동산 침체로 소비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, 추가 부양 기대가 높아질 전망.

3 韓 4Q 성장률 -0.3%qoq 역성장 (1/22일)
3Q 정책 약화 영향, 26년 완만한 반등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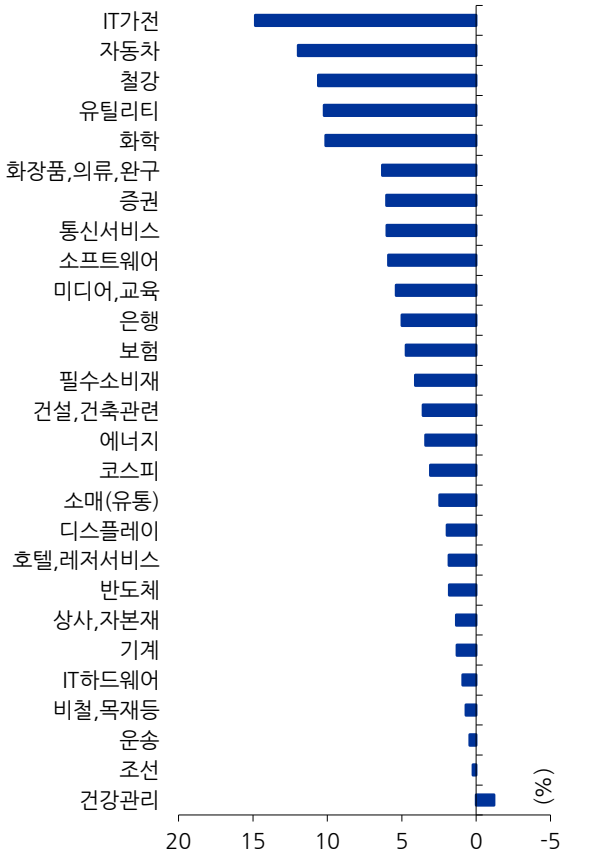
- 국내 4Q GDP 성장률은 예상(+0.2% qoq)과는 달리 -0.3%qoq (1.5%yoy)을 기록함 (3Q +1.3%qoq, +1.8%yoy).
- 3Q 성장률 회복에 기여했던 소비쿠폰과 추경 효과가 약화됨. 민간소비는 3Q +1.3%qoq에서 4Q +0.3%qoq로 둔화됨. 설비투자는 3Q +2.6%qoq에서 4Q -1.8%qoq로 감소함.
- 25년 4Q 국내 경제가 부진했으나, 둔화 추세가 재개되었다기보다 정책 효과 약화에 기인함.
- 2026년 1Q 성장률은 증시호황, Tech 수출 등에 힘입어 +0.6~0.7%qoq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.

4 韓 채권시장 동향(1/19~23일)
추경 언급과 일본 금리 불안으로 금리 상승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137%(+5.7bp), 10년물 금리 3.59%(+10.2bp) 마감.
- 금통위 여파와 함께 코스피 5,000pt를 앞둔 위험자산 선호로 금리 상승 출발.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기회에 대한 발언으로 금리 급등.
- 일본 조기총선과 BOJ 등 불안에 일본 금리가 초장기물 중심 급등한 것도 영향. 미국 그린란드 관세 취소됐으나 투자심리 회복 어려웠음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1/23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1/26 ~ 1/30)

美 1월 FOMC(1/27~28일) → 동결 우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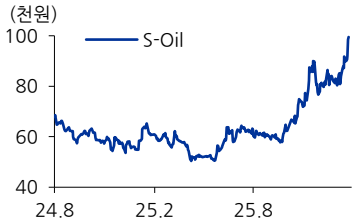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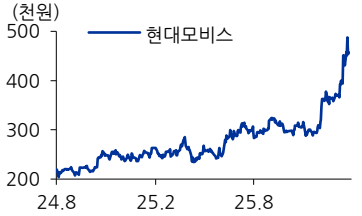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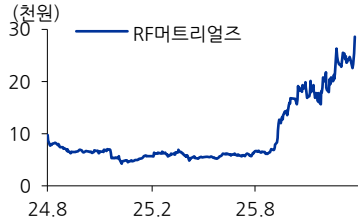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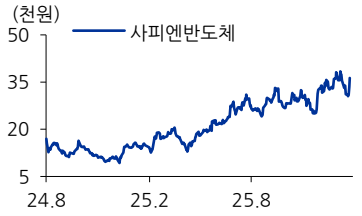
- 美 연준은 26년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함(3.5~3.75%).
- 4Q CPI는 +2.7%yoy로 둔화.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후퇴도 물가 안정에 긍정적.
- 금리 결정 자체 보다 파월의장의 고용 및 물가에 대한 기자회견이 중요함. 파월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.
- 최근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. 5월 파월 임기 종료까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음.
-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군은 통화정책 완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하에 우호적이나, 실제 금리인하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.

美 12월 생산자물가지수(1/30일) → 인플레 압력 지속

- 정부폐쇄로 1월에 발표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+0.2% 상승하며 시장예상(+0.1%)을 상회했음.
- 에너지 부문 가격이 +4.6% 급등하면서 최종재 가격이 +0.9% 상승하며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함.
- 공급망 안정과 국제유가 하락에도 도매 물가가 완만한 인플레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- 1/30일 발표 예정인 1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+0.3% 상승할 것으로 예상.
- 생산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.
-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2Q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1/26 (월)	▪ 美 11월 내구재 주문 (P: +3.0%yoy, C: -2.2%yoy)	▪ [실적발표] 韓 S-Oil, 진에어
1/27 (화)		▪ [실적발표] 美 유나이티드 헬스그룹, 보잉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
1/28 (수)	▪ 美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(P: 90.1pt, C: 89.1pt)	▪ 美 FOMC 회의 (~29일) ▪ [실적발표] 韓 기아, 현대모비스, SK이노베이션, ▪ 美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테슬라, ASML, 램리서치,
1/29 (목)		▪ [실적발표] 韓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LG에너지솔루션, POSCO홀딩스, LG화학 美 애플, 아마존, 비자, 마스터카드, 캐터필러
1/30 (금)	▪ **美 12월 생산자물가지수** (P: +2.6%yoy, C: +3.0%yoy) ▪ **유 4분기 GDP** (C: +1.4%yoy) ▪ 유 12월 실업률 (C: 6.3%) ▪ 韓 12월 산업생산 (C: -1.4%yoy)	▪ [실적발표] 韓 삼성중공업, LG전자, 현대오토에버 美 엑슨모빌, 셰브론,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
1/31 (토)	▪ 中 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(P: 50.1pt) ▪ 中 1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(P: 50.2pt)	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반도체 장비	한미반도체 (042700)	177,500 (1월 19일)	-3.6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558.9 / 634.5 / 901.9 영업이익 255.4 / 299.5 / 461.5 순이익 152.6 / 245.6 / 397.9 PER (배) 52.5 / 66.8 / 41.0	▪ 기존 TC 본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국내 주요 칩 제조사향 신규 수주 기대 ▪ 주요 고객사들이 HBM4E까지 TC 본딩을 적용함에 따른 TC 본더 장비 강세 지속 예상 ▪ 빅 다이 본더, MSVP, EMI 실드 장비 등의 ASP 상승으로 인해 TC 본더 이외 매출까지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
정유	S-Oil (010950)	90,100 (1월 19일)	+10.4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36,637.0 / 34,059.2 / 31,824.2 영업이익 422.2 / 245.1 / 1,411.3 순이익 (193.0) / 135.8 / 849.0 PER (배) - / 85.4 / 13.7	▪ 중국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 ▪ 국제유가 반등 및 정제마진 강세 ▪ 샤힌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실적 증가
자동차	현대모비스 (012330)	372,000 (1월 5일)	+23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57,237.0 / 61,320.0 / 65,434.0 영업이익 3,073.5 / 3,363.8 / 3,818.7 순이익 4,060.2 / 4,021.0 / 4,458.6 PER (배) 5.4 / 10.6 / 9.3	▪ 아틀라스 로봇 액츄에이터 공급, HL만도 등 동종사 대비 저평가 매력도 높음
통신	RF머트리얼즈 (32760)	25,350 (1월 5일)	+12.8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4.5 / 60.2 / 77.1 영업이익 (1.5) / 6.7 / 9.6 순이익 (7.6) / 7.0 / 8.8 PER (배) - / 46.8 / 26.8	▪ 펌프레이저 전방 수요 강세 ▪ 증설 공시에 따른 2027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기대
반도체	사피엔반도체 (452430)	35,600 (1월 5일)	+2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8.0 / 18.4 / 37.4 영업이익 (3.4) / (2.7) / 3.0 순이익 (17.1) / (3.1) / 3.6 PER (배) - / - / 82.1	▪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AR Glass 시대 도래 수혜 ▪ CES 2026 등을 통한 신제품 공개 및 글로벌 출시 경쟁 ▪ AR Glass 핵심 기업에 부품 공급 확대 예상